

→ 굵은 글씨가 맞는 표현임.

- 오늘 수업 시간엔 (백분율 / 백분률)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- 분위기에 (걸맞는 / 걸맞은) 옷차림이다.
- 식성에 (맞는 / 맞은) 음식을 선택해라.
- 우리의 제안을 어떻게 (생각할는지 / 생각할런지) 모르겠어.
- 나는 지금까지 접수를 (하려고 / 할려고) 기다리고 있다.
- 우리 나라에 (내노라 / 내로라)하는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.
- 마른 (나뭇가지 / 나무가지)에서 떨어지는 작은 잎새 하나
- 이번 달 네가 지각한 (횃수 / 회수)를 알기나 하니?
 - ↳ 두 음절로 이루어진 한자어의 경우 첫음절이 모음으로 끝나면 사이시옷을 넣는다.
(예) 곳간(庫間), 셋방(貰房), 숫자(數字), 차간(車間), 퇴간(退間)
- 돌의 (개수 / 갯수)를 헤아려 보아라.
- 이것은 책(이오 / 이요).
- 이것은 책(이오 / 이요), 저것은 붓(이오 / 이요), 또 저것은 먹이다.
- 내일 다시 (올게 / 올께).
- 그는 어지럽혀 있던 방을 (깨끗이 / 깨끗히) 청소하였다.
- 어머니는 (틈틈이 / 틈틈히) 공부하여 대학에 합격할 수 있었다.
- 정원은 아침 이슬로 (촉촉이 / 촉촉히) 젖어 있었다.
- 나는 (솔직이 / 솔직히) 그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.
- 그는 아침에 (일찌기 / 일찍이) 나섰지만 길이 막혀 지각하고 말았다.
- 그렇게까지 해 주신다면야 (더우기 / 더욱이) 고맙지요.
- 지난 겨울은 몹시 (춥더라 / 춥드라).
- 지난 해까지 (깊던 / 깊은) 물이 얕아졌다.
- 배(던지 / 든지) 사과(든지 / 던지) 마음대로 먹어라.
- 그녀의 집은 살림이 (넉넉지 / 넉넉치) 않다.
- 내가 (생각건대 / 생각건대) 그 일처리는 옳지 못하다.
- 그 일에 대해 나는 전혀 (섭섭지 / 섭섭치) 않다.
- 이 병아리는 (수놈 / 숫놈)이다.
- 저 (수사자 / 숫사자)가 제일 사납다.
- 장끼는 (수쟁 / 수쟁)을 이르는 말이다.
- 완전한 봄이 되었는지 (아지랑이 / 아지랭이)가 피어오르고 있었다.
- 그 (미장이 / 미쟁이)는 솜씨가 좋다.
- 그는 (멋장이 / 멋쟁이)라 불릴 만하다.
 - ↳ 기술자에게는 ‘-장이’, 그 외에는 ‘-쟁이’가 붙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. (예) (유기장이 / 유기쟁이), (소금장이 / 소금쟁이), (담쟁이 / 담장이), (골목쟁이 / 골목장이)

우공 국어	우리말답지 않은 표현
----------	-------------

☞ **오른쪽 표현이 우리말다운 표현**

- ~에 의하여(의해), ~에 의하면(일본어투) ☞ ~으로
 (예) 노동 쟁의를 공권력에 의해 진압하고 ☞ 노동 쟁의를 공권력으로 진압하고
- ~(으)로부터 ☞ ~에게서, ~에서
 (예) 그 소식을 동생으로부터 들었다. ☞ 그 소식을 동생에게서 들었다.
- 서로의, 와/과의, 에의, 으로의, 에서의, 으로서의, (으)로부터의, 에로의, 에게서
 ☞ 불필요한 음절 생략하거나 바꾸어야 함.
 (예) 서로의 주장이 달라 ☞ 서로 주장이 달라
 남북 회담에의 기대 → 남북 회담에 대한 기대
- ~에 다름아니다. ☞ ~과(나) 다름이 없다. ~할만하다.
 (예) 그는 선각자에 다름아니다. ☞ 그는 선각자나 다름없다. / 그는 선각자라 할 만하다.
-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.('It is not to much to ~의 직역) ☞ ~ 지나침이 없다. ~함이 당연하다.
 (예) 불조심을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. ☞ 불조심은 아무리(늘)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. / 언제나 불조심해야 한다.
- ~에 대하여 ~관심을 기울이다(일본어투) ☞ ~에게 관심을 두다
 (예) 나는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. ☞ 나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. / 나는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.
- ~을 가지다('have a ~'의 직역). ☞ ~을 하다
 (예) 오늘 오후 1시에 회의를 가집시다. ☞ 오늘 오후 1시에 회의를 합시다.
- 이것을 고려에 넣는다면(take account of~, take account into~) ☞ 이것을 고려한다면
 (예) 비용을 고려에 넣는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. ☞ 비용을 고려한다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.
- ~할 예정으로 있다('be going to ~'의 직역) ☞ ~할 예정이다, ~할 것이다, ~할 참이다
 (예) 내일 출국할 예정으로 있다. ☞ 내일 출국할 예정이다.
- 납득이 가다('go down with me'의 직역) ☞ 납득할 수 있다, 납득하다
 (예) 네가 어제 한 말은 납득이 간다. ☞ 네가 어제 한 말을 납득할 수 있다.
- 불필요한 피동이나 이중 피동
 (예) 이것은 환경의 변화라고 보여진다. ☞ 이것은 환경의 변화로 보인다.
 (예) 일명 '통곡의 벽'이라 불리는 솔로몬 성전 서쪽 벽 ☞ 일명 '통곡의 벽'이라 부르
는 솔로몬 성전 서쪽 벽

우공 국어	<h1>순 우리말 표현</h1>
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

- 오늘은 하늘이 맑아 은하수가 보이네. 📖 **미리내**
(‘미리내’의 어원: 하늘 위에 구름 떠 모양으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천체의 무리를 은하(銀河)라 한다. 일상적으로 ‘은하’를 강(江)에 비유하여 은하수라 하며, 은하수의 순 우리말 표현이 ‘미리내’이다.)
- 꿈에 여섯용이 날아올랐다. 📖 **나르샤**
(‘날아오르다’라는 뜻)
- 가랑비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젖어들었다. 📖 **시나브로**
-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강과 산을 좋아하였다. 📖 **가람**
- 바람이 서쪽에서 불어온다. 📖 **하늬바람**
(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뜻함)
- 옆으로 짝 퍼지게 끼얹는 물 📖 **나비물**
-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하고 귀를 기울이다. 📖 **귀재다**
- 숫자 100, 1,000, 10,000 📖 **온, 즘, 두맨**
- 사람의 때를 타지 않아 훼손되지 않고 갈라지지 않았으며 쪼개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상태 📖 **온새로미**
- 한글날의 처음 이름. 1926년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치르는 자리에서 정해진 말 📖 **가가날**
- 1. 새색시, 2. 작게 만든 여자 인형. 📖 **각시**
- 숲에서 종달새 소리가 들린다. 📖 **노고지리**
- 십 리(약 4km)가 못 되는 거리를 ‘리’대신 쓰던 말. 📖 **마장**
- 한 달 쯤 된 동안 📖 **달포**

- ▶ **호칭어**(呼稱語) : 사람이나 물건 따위의 상대를 부르는 말. 일상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말
▶ **지칭어**(指稱語) : 사람이나 사물 등을 가리켜 이르는 말.

- 대인**(大人) :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.
대부인(大夫人) : 남의 어머니를 높여서 부르는 말.
도련님 : 형수가 미혼의 시동생을 호칭하는 말. ←도령님.
동서(同壻) : 여형제의 남편끼리 지칭하는 말. *호칭이 아니다.
매부(妹夫) : 누이동생의 남편* 매제(妹弟)라고도 한다.
매형(妹兄) : 손위 누이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.[= 자형(姊兄)]
백모(伯母) : 아버지 형제 중 맏형의 아내.(=큰어머니)
백부(伯父) : 아버지 형제 중 맏형.(=큰아버지)
부군(夫君) : 남의 남편을 높여 이르는 말.
부인(夫人) : 남의 아내를 높여 일컫는 말. =합부인(閤夫人). 영부인(令夫人).
빙모(聘母) : 장모(丈母)의 높임말.
빙장(聘丈) : 장인(丈人)의 높임말. *장인어른.
선고(先考) : 돌아가신 아버지. =선친(先親).
선고장(先考丈) :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. =선대인(先大人).
선대부인(先大夫人) : 돌아가신 남의 어머니를 이르는 말.
선대인(先大人) : 돌아가신 남의 아버지.=선고장(先考丈).
선비(先妣) :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.
선친(先親) :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. =선고(先考).
시가(媿家) : 시집을 가리키는 말. *시댁(媿宅)
시누이 : 남편의 누이. *시누(준말).
올케 : 오빠나 남동생의 아내를 뜻하는 말로 쓰임. *어원상 좋지 않은 말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.
외숙(外叔) : 어머니의 남자형제.(=외삼촌)
외숙모(外叔母) : 외숙의 아내.
외조모(外祖母) : 외할머니.
외조부(外祖父) : 외할아버지.
이모(姨母) : 어머니의 여형제. *언니와 여동생끼리는 형제간이다.
이모부(姨母夫) : 이모의 남편. ×이모아버지.
자당(慈堂) : 상대방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. =횡당(萱堂). 북당(北堂).
영당(令堂) :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.=자당. 횡당. 북당.
자부(子婦)님 : 남의 며느리를 높여 이르는 말. *자기 며느리를 자부(子婦)라 고 하지 않는다. 자기 며느리는 '며느리' '며늘아이'라고 함.
제부(弟夫) : 여자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르는 말. =계부(季夫).
질녀(姪女) : 형이나 동생의 딸. ×조카딸.
질부(姪婦) : 조카의 아내. 형이나 동생의 며느리. ×조카며느리.
춘부장(春府丈) : 살아 있는 남의 아버지를 높여 이르는 말.=椿府丈.
형부(兄夫) : 언니의 남편을 호칭하거나 지칭하는 말.=새아재
형수(兄嫂) : 형의 아내란 뜻. *아주머니, 형수님, '새아지매'라고도 부른다.

- 갓 : 조기, 굴비 따위의 해산물이나 고비, 고사리 따위를 묶은 단위로, 해산물은 10마리, 나물 종류는 10모숨을 한 줄로 엮은 것.
- 강다리 : 장작 100개비를 한 단위로 이르는 말
- 거리 : 오이나 가지 따위의 50개를 이르는 말
- 고팽이 : 새끼나 줄 따위를 사리어 놓은 한돌림을 세는 단위
- 괘미 : 노끈이나 꼬챙이 같은 것에 꿰어 놓은 물건을 세는 단위. 주꾸미나 낙지 따위.
- 담불 : 벼 100섬을 이르는 말
- 두름 : 조기, 청어 따위를 10마리씩 두 줄로 묶은 20마리 또는 산나물을 10모숨으로 묶은 것
- 마지기 : 논밭의 넓이에 쓰이는 단위. 벼나 보리의 씨를 한 말 뿌릴 만한 넓이를 한 마지기라 함. 논은 200평~300평, 밭은 100평에 해당됨.
- 매 : 젓가락 한 쌍(2개)
- 모숨 : 한 줌 분량의 긴 물건을 세는 단위
- 못 : 채소, 짚, 잎나무, 장작의 작은 묶음을 이르는 말. 생선 10마리, 미역 10장, 자반 10개를 이르는 단위이기도 함.
- 바람 : 실이나 새끼 같은 것의 한 발쭈 되는 길이
- 바리 : 마소에 잔뜩 실은 짐을 세는 단위
- 새 : 피륙의 날실 40올에 해당되는 말
- 손 : 큰 놈 뱃속에 작은 놈 한 마리를 끼워 넣어 파는 자반고등어(두 마리)
- 쌈 : 바늘 24개
- 우리 : 기와를 세는 단위. 한 우리는 2,000장임.
- 자밤 : 양념 따위를 엄지, 검지, 장지 세 손가락 끝으로 잡을 만한 분량
- 접 : 사과, 배 등 과일이나 무, 배추 등의 채소 100개를 이르는 말
- 좨기 : 데친 나물 같은 것을 주먹만큼 짜서 뭉쳐 놓은 덩이
- 죽 : 옷, 신, 그릇 따위의 열 개를 이르는 말.
- 축 : 말린 오징어 20 마리
- 괘 : 북어 20마리
- 툇 : 김 100장을 한 묶음으로 세는 단위. 원래는 40장이었다고 함.